

祝 辭

2017. 4. 6.

금 융 위 원 회

※ 상기 자료는 보도의 편의를 위해 제공해 드리는 것으로서
실제 내용은 동 자료와 다를 수 있음을 유념해주시기 바랍니다.

I. 인사 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위원장 임종룡입니다.

먼저 금융권 공동 Demo Day 개최를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오늘 행사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중심으로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유관기관 등
21개 기관이 참여하는 핀테크 협력 네트워크가
공식적으로 출범하는 자리입니다.

협력 네트워크의 첫 사업으로
오늘 금융회사의 핀테크 랩에서
육성된 유망 스타트업들의 기술과 서비스를 시연하는
자리를 마련하였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와 금융권이 공동으로
개최하는 첫 번째 Demo Day라는 측면에서
그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오늘은 핀테크 지원센터 개소 2주년을
축하하는 자리이기도 합니다.

지난 2년 동안 핀테크 지원센터가
생태계의 구심점이 되어
우리 핀테크 산업의 성장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오늘이 있기까지 열정과 노력을 쏟아주신
핀테크 지원센터 임직원 여러분과
물심양면 지원을 아끼지 않으신
11개 운영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오늘 자리를 함께 해 주신
핀테크 업계, 금융업계의 관계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II. 핀테크 협력 네트워크 출범의 의의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창업-사업화-성장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생태계(ecosystem)를 구축하는 것이 관건입니다.

지난 2년간 핀테크 지원센터는
예산과 인력이 한정된 녹록지 않은 여건에도 불구하고
핀테크 생태계의 기반을 다지는데 큰 기여를 했습니다.

핀테크 스타트업과 창업자에게
상담서비스를 제공(535건)하고,
Demo Day를 개최(20회)하여 우수 핀테크 기업의
기술과 서비스를 소개하는 기회를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금융회사와의 제휴, 해외시장 진출 등
가시적인 성과도 거두었습니다.

그러나, 핀테크 지원센터의 현재 기능만으로는
핀테크 기업들이 원하는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은 어려웠습니다.

오늘 MOU 체결을 계기로
금융회사, 정책금융기관 등 21개 기관이
핀테크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하게 되면

각 기관의 자원과 역량을 활용하여
다양한 공동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며,
온·오프라인에서 유기적인 협력이 가능해져
기업 성장단계별 맞춤형 지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핀테크 예비창업자가 지원센터를 방문하면
기존에는 창업 상담서비스를 받는 것에 그쳤지만,

앞으로는 핀테크 지원센터와 협력기관들이
제공하는 맞춤형 교육을 제공받을 수 있게 되며

아이디어 공모전에 참여하여
사업 아이디어를 소개하고 평가받을 수도 있게 됩니다.

성장을 위한 자금이 필요한 스타트업의 경우,
핀테크 지원센터의 핫라인을 통해
정책금융 담당자와 연결되어 필요한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되고,

해외시장 진출을 원하는 기업의 경우,
KOTRA 등 협력기관이 제공하는
해외시장 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고,

미래부 산하 보육기관인 KIC* 등이 제공하는
실리콘밸리, 베이징 등의 현지 육성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기회도 가질 수 있게 됩니다.

* 글로벌혁신센터(Korea Innovation Center): 실리콘밸리, 중국, 싱가포르, 뮌헨
등에 현지 보육·성장을 위한 시설, 인력, 네트워크 보유

이를 통해 핀테크 생태계의 자생력이 길러지고
창업-사업화-성장-해외진출로 이어지는
생태계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III. 핀테크 지원센터 개편의 기본방향

여러분,

우리 핀테크 산업은 한 단계 더 도약해야 하는
성장의 분기점에 놓여있습니다.

핀테크 산업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지원체제도 그에 걸맞게 정비되어야 할 것입니다.

개소 2주년을 맞이한 핀테크 지원센터도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간 정부는 핀테크 지원센터와의 협업을 통해
핀테크 생태계 조성을 주도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의 결과, 2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
핀테크 관련 창업과 투자가 크게 늘어나고*
국민들이 핀테크를 친숙하게 이용하게 되는** 등
많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전자금융업자수(개) : ('14) 60 → ('15) 83 → ('16) 97

핀테크 기업 투자규모(억원) : ('14) 87 → ('15) 473 → ('16.6) 777

** 국민의 66.3%가 '핀테크'를 인지, 핀테크 이용자 중 74.2%가 서비스에
만족('15.11, 한국리서치)

이제 **변화**를 도모할 시점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핀테크 생태계의 기반이 마련되고
민간의 역량이 충분히 성장한 만큼,

핀테크 지원센터의 운영에 있어
민간의 역할을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한 정책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현재 핀테크 지원센터는
임시 TF 형태를 취하고 있어
안정적 운영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자체 예산을 편성·관리할 수 없고,
인력을 채용하거나 자산을 보유하는 것도 어려워
체계적으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점도 있었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원체계를 갖추고
연속성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핀테크 지원센터를 상설조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됩니다.

정부는 이러한 두 가지 방향을 기초로
빠른 시일 내 핀테크 지원센터가
민간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상설지원기관으로 전환하도록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원센터와 운영기관, 업계 등을 포함하여
개편방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논의해나가겠습니다.

핀테크 지원센터가 이러한 변화의 과정을 거쳐
영국의 Level 39, 호주의 Stone & Chalk처럼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핀테크 지원기관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희망해 봅니다.

IV. 마무리 말씀

핀테크 지원센터가 출범하던 당시
우리 금융산업의 옥동자를 키우는 마음으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겠다는 얘기를 한 바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4.3일) 우리나라 최초의 인터넷전문은행인
케이뱅크가 공식적으로 **영업**을 개시하였고,
어제(4.5일)는 **카카오뱅크**가 **본인가**를 받아
이제 본격적으로 영업 준비에 착수하였습니다.

오늘은 지원센터 출범 2주년을 맞이하여
금융권을 아우르는 **핀테크 협력 네트워크**가 출범하고
금융권 공동 **Demo Day**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품 안에 옥동자가 걸음을 떼고 쑥쑥 성장해 나가듯이
우리 핀테크 산업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해 나가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여러분
한분 한분의 노력과 열정의 결과입니다.
이 자리를 빌어 감사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핀테크 협력 네트워크** 출범과
금융권 공동 **Demo Day** 개최를 다시 한 번 축하드립니다.

감사합니다.